

도이 요시오의 교육실천과 종교성

- 학교문집 『하부가 언덕』을 중심으로 -

기타지마 노부코(北島信子)

오오카학원대학(桜花学園大学)

이찬수 · 이서현 옮김

【요약】

도이 요시오(東井義雄, 1912-1991)는 일본에서 저명한 교사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교사인 동시에 승려였다. 도이는 아이들이 과제를 풀어갈 때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가정이 하나되고 협동하여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어른의 작품을 포함한 학교문집을 만들어 학교와 지역 간 연대를 이뤄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이의 학교문집 『하부가 언덕』(はぶが丘) 속 작품을 다루고 신앙을 기저에 둔 학교와 지역의 관계 맺기가 상생과 평화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문집에는 도이가 생활했던 마을 특유의 독실한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어른들이 만들어낸 ‘합장’, ‘기린다는 것’, ‘산다는 것’, ‘살아진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 등의 작품이 투고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집 『하부가 언덕』의 교류를 통해 신앙을 근거로 부모·자식·교사 사이에서 이해심이 깊어지고, 점차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초월하여 타자와 함께 배우는 동시에 자기심화를 이뤄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에게 협동하는 삶을 가르치려는 오늘날의 평화교육을 생각할 때 도이의 교육실천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도이 요시오, 생활작문교육, 종교교육, 상생, 함께 배우기

I. 서론

도이 요시오(東井義雄, 1912-1991)는 저서 『마을을 키우는 학력』(村を育てる学力, 1957)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교사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토진종 본원사(浄土真宗本願寺)와의 승려이기도 했다. 도이는 교사가 되었을 때부터 생활작문 교육에 열정을 쏟았으며 전전·전후를 통틀어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을 추구해 왔다. 생활작문이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느꼈던 점, 생각하는 점을 문장으로 적고 만들어낸 작품을 학급집단에서 검토하여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의 심화와 공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¹⁾으로, 일본의 전전·전후에 걸친 긴 시간동안 발전해 왔다. 여러 작문교사 중에서도 교육관이 심화될수록 종교성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천가가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도이 요시오라고 할 수 있다. 도이는 자신의 교육관이 풍부해지는 것에는 자신의 종교적 깨달음이 반영되었음을 자신의 저서에서 서술하기도 했다.

도이의 종교성은 공(空)·연기관(緣起觀)에서 보이는 상호관계성과 자기중심주의 성찰, 다라니불을 기축으로 하는 인간 평등, 자립성과 연대 사상에 따른 15세기 중반 서 일본의 자치적 지역공동체를 형성해낸 불교 정토진종의 사상이다.

II. 도이 요시오의 생애

도이 요시오는 1912년 효고현 이즈시데군 아이하시(현 도요오카시, 도요오카 중심지에서 약 30km 떨어진 산간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의 정토진종 본원사와 도코지(東光寺)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소학교 1학년 무렵 어머니를 잃었으며, 그 후 여러 일을 겪고 가난하게 자랐다. 히메지시의 한 학교(현 고베대학)를 졸업하고 1932년에 도요오카 진조고등소학교(豊岡尋常高等小学校, 도요오카 중심지 소재)에 부임, 10년간 교직생활을 한다. 여기서 선배 교사의 교육 실천방식에 영향을 받아 생활작문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전전기 무렵 도이가 청년교사일 때부터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교사였음을 그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1) 佐藤広和「生活綴方」の項 安彦忠彦他編『新版 現代学校教育大事典』(ぎょうせい, 2002).

당시 일본의 불황에도 가난한 이들에게서 ‘공물’을 받아내는 종교를 향해 의구심을 느끼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무신론에 빠져든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 교육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무신론을 벗어나고 『아동의 신민감각』(学童の臣民感覚, 1944년)이라는 서적을 출판한다. 전전·전후를 거치는 동안 도이의 ‘생명’ 사상은 ‘소중함’이라는 자각부터 ‘아이들에게서 배운다’는 자세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전전의 ‘생명’ 사상이 천황의 ‘신하’와 불교의 ‘부처’가 혼재하며 나타난 ‘신하의 생명’이었다면, 전후에는 ‘신하’가 아닌 ‘부처(의 생명)’를 통해 ‘소중함’을 자각했다고 볼 수 있다.²⁾

도이는 자신의 ‘전쟁협력’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를 그만두고자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강하게 원하는 바람에 전후에도 교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공공연한 집필활동을 줄이고 교육 실천에 힘썼다. 전후에 부임한 아이다 소학교에서 생활작문교육을 중심으로 부모·자식·교사가 함께 문집을 만들며 상호 교류를 해나갔다. ‘우리집만 잘 되면 됐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마을(타자)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생각하는 아이와 어른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다. 이것이 바로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가기 위한 ‘학력’이 아니라, ‘마을을 키우는 학력’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권력으로 통제된 집단이 아닌, 밑에서 시작된 연대라 볼 수 있다.

도이 요시오는 아이들의 생활논리를 중시하고 현실의 과제와 교과 속 과제를 연결해 발전시키는 교육방식을 실천했다. 그의 실천은 높게 평가되었고, 곧 주위의 권유를 받아 전후 1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불후의 명저로 불리는 『마을을 키우는 학력』(1957년)을 출판했다. 도이는 공적을 인정받아 페스탈로치 상, 사사오카 다다요시 상을 수상하고, 그 후 많은 저서나 논문을 발표했다. 1972년 정년퇴직하고 1987년 모든 교직생활을 끝냈다. 후년에는 종교인으로서 활동하며 ‘생명의 교육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마을에는 불교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들의 행복, 진정한 학력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연대하는 교육활동과 학교문집 『하부가 언덕』 속 작품을 고찰하며 신앙을 기저로 타자에게서 배우고 또 서로에게서 배우는 삶이 공생의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2) 北島信子 「東井義雄の教育実践における宗教性の一考察－親・子・教師の文集『はぶが丘』を中心に－」(『中部教育学会紀要』第15号, 2015年). p.24頁.

III. 생활작문과 도이 요시오의 전전, 전후

전후에 ‘작문’이라는 이름의 과목은 없었으나, 메이지 시대의 교육과정 행정에 따라 ‘작문’은 국어과 수업(말하기, 쓰기, 작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 안에서 ‘작문’은 정규 교과서 없이 문장 표현력 기르기가 목적인 수업이었다. 실제로 교육과정 행정에는 전전·전후 동안 생활작문 교사들이 거쳤던 ‘아이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통해 친구들과 연대하는 것’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다.

생활작문교육은 다이쇼·쇼와 초기(1912~1930년 경)에 발전한 후 전쟁이 격화되며 국가(천황제)주의 권력에 대항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탄압을 받았다. 실제 도이도 ‘국가권력’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도이가 『아동의 신민감각』(1944년)을 발표했으나 진정한 ‘전쟁협력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아동의 신민감각”은 아이들의 주체적 배움이란 무엇인지 그 자신의 교육관을 반성하는 내용이며, 거기서는 정토진중의 교의까지 발견할 수 있다. 전전 무렵 도이는 천황과 아미타불을 일체화한 정토진중의 ‘진속이제론’을 지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후에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돌아보며 아이들, 지역 사람들 속에서 부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작문’에 반영하고 공유함으로써 자기개혁과 연대를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 지역을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길로 나아간 것도 일관되게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 생활작문교육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교육이 비판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생활작문교육은 여러 방면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생활작문’을 전개했던 ‘일본작문모임’이 1962년 방침을 선회하면서 ‘생활작문의 교육방법’이라 불렀던 생활지도와 교과지도보다는 문장표현지도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³⁾ 하지만 생활작문을 실천하는 교사들 모두가 해당 방침에 따랐던 것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아이가 자신의 생활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독립된 개인임을 이해하며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작문교육을 계승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도이 요시오도 마찬가지이며 전전 및 전후 일관되게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을 펼치고, 특히 전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생활작문교육을 전개했다.

전후에 들어서 도이의 교육관에는 신란(親鸞, 정토진중의 개조)의 사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아이다 소학교에서 부모·자식·교사가 만들어낸 문집 『하부가 언덕』을 시작

3) 佐藤広和「生活綴方」の項 安彦忠彦他編『新版 現代学校教育大事典』(ぎょうせい, 2002).

으로 『마을을 키우는 학력』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의 10년은 그가 전전기에 『아동의 신민감각』을 출간하면서 ‘전쟁에 협력’했다는 지난 ‘과오’ 때문에 괴로워 한 시기이기도 했다. 아이다 소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대했던 활동(『하부가 언덕』)은 정토진중 승려인 도이의 ‘참회’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도이의 ‘참회’란 ‘범성역방제회입(凡聖逆謗齊廻入)’에서 나왔듯이, 누구(범성역방)든 ‘마음을 바꿔 여래의 본원력에 귀의한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자비를 누릴 수 있으며, 같은 행신의 인(行信の因)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전쟁협력자였던 자신’(‘생명’을 천황의 ‘신하된 생명’이라 여겼던 것)도 ‘마음을 바꿔 여래의 본원력에 귀의한다면’, ‘같은 행신의 인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참회’인 것이다.

‘참회’를 바탕으로 한 그의 삶은 전전보다 더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마을’과 연대했던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아이들로부터 배운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민중)로부터 배운다’(‘민중’으로부터 부처를 본다)는 자세를 취했다는 뜻이다.⁴⁾

3. 부모 · 자식 · 교사의 문집 『하부가 언덕』을 통한 종교성 교육

1. 부모 · 자식 · 교사의 문집 『하부가 언덕』이란

이제 도이의 학교에서 만들어진 문집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도이의 학교에서는 부모 · 아이 · 교사가 함께한 문집 “하부가 언덕”을 발행하고, 지역 · 가정과 학교가 협동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임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가 상부에서 지역 · 가정,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배움을 얻는다는 자세를 지녔다는 점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자세는 불교의 공 · 연기관 사상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하부가 언덕”은 아이다 소학교 인근을 칭하는 다른 이름으로, 문집 『하부가 언덕』은 1954년 7월 탄생했다.

문집은 머리말, 성인(부모) 작품, 교사 작품, 아이들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자녀가 아이다소학교에 재적하는 ‘부모’만이 아니라, 통학구역에 사는 성인 전체를 아우른다. 작품에는 시부터 시작하여 성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글, 교사의

4) 北島信子 「東井義雄の教育実践における宗教性の一考察－親・子・教師の文集『はぶが丘』を中心に－」(『中部教育学会紀要』第15号, 2015). pp.24-25.

교육실천 방식을 다룬 글도 있다. 『하부가 언덕』은 60호(1960년 쇼와 35년 6월 간행)까지 이어졌다. 도이 요시오가 교장직을 역임한 것은 55호가 나올 무렵이었으며, 문집은 그 후 60호까지 간행되었으나 도이의 학교장 업무가 바빠지면서 간행을 멈췄다고 한다.

생활작문교육 면에서도 아이들의 작품을 문집으로 엮어내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었다. 게다가 성인(교사나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작품도 동등하게 엮어낸 작품집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특히 도이의 학교 문집은 마을 사람들이 작품 속에서 신앙을 다루며 신앙심을 쌓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문집과 큰 차이를 가진다. 물론 신앙에 관련된 작품만 신지는 않았으나, 특히 아이들의 조부 조모 세대의 작품에는 신앙과 관련된 것이 다수였다. 그리고 아이다 구가 농촌 지역이라는 특징도 있어 농업(일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 표현되었다. 당시 일본은 농번기가 오면 농촌지역 학교는 곧잘 휴교령을 내렸다. 도이의 학교 주변 가정은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도 부모의 농사일을 돕는 것이 당연했다. 문집에서는 ‘농번기 연구’ 특집으로 삶과 배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농번기 연구가 투고되었다. 이를 통해 어른도 배우고 아이들도 일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나아가 어른들이 투고하는 작품에는 일과 신앙이 접목되기도 했다. 삶(일)과 신앙심이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을 다수 볼 수 있다. 도이는 정토진종의 승려였지만, 아이다 소학교 주변은 온갖 종교(불교·신도·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을이었다. 그는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웠으며, 문집을 통해 사람들로 부터 배움을 계속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협동적이지는 않았으나, 도이를 비롯한 교사의 교육이나 문집을 통해 타자에게서 배움을 얻으며 변모해간 것으로 보인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며 막연하게만 종교를 믿었던 탓인지, 은연 중에 ‘우리집만 잘 살면 됐다’는 사고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마을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 만큼 밭에 물을 대려면 곧잘 ‘다툼’이 생겼다고 한다. 도이는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을 통해 어른들의 이러한 행태가 아이들의 학습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을 쌓아가려면 친구들과의 협동, 나아가 마을 어른들끼리 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바쁘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잦은 대화의 시간을 갖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에 도이는 굳이 만나지 않고도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문집’을 제안한다. ‘문집’ 투고는 자녀를 아이다 소학교에 보내고 있는 세대만이 아니라, 그 주변 마을에 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글을 읽게 되었다.

2. 『하부가 언덕』 속 작품의 특징

여기서는 『하부가 언덕』에 투고된 작품의 특징인 신앙을 근거로 하는 지역의 관계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현대 일본의 교육활동에서도 문집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실명을 포함해 아이들의 다양한 작품을 인쇄하고 배부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 하물며 가족의 죽음을 다루거나 애도하는 작품을 쓰고 인쇄, 배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문집 『하부가 언덕』에서는 아이다 소학교 학생들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학교나 아이들만으로 그 슬픔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투고로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투고된 작품은 문집의 호가 거듭되면서 심화하는 방식이었다기보다는, 문집 초기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어른의 깊은 자기성찰이 다수 목격된다. 여기에는 대승불교와 연결되는 공·연기관의 상호관계성 및 상이한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인식하면서 생겨나는 자기객체화, 사물의 일체성을 인식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역·마을의 가정 대부분이 도이 요시오가 일하는 정토진중·도코지에 다니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설법을 들을 기회가 많았던 데다가⁵⁾ 특정 종교와 종파를 불문하고 신앙이 두터운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하부가 언덕”에서는 아이들(당사자만이 아니라 학교의 친구들도)뿐만 아니라 성인(지역사람들)도 함께 글을 쓰고 ‘죽음’을 수용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죽음’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심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부가 언덕』에서 생활과 삶, ‘살아진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마주하고 글로 적어 표현하며 교류했던 것은 물론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유의 독실한 신앙적 토양 때문으로 보인다.

3. 작품의 고찰—자기심화와 상호이해

본 장에서는 몇 개의 작품을 예로 들 것이다. 고찰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인용문에

5) 菅原稔, 「東井義雄先生の教育実践と学校文集『土生が丘』—その意義と価値—」(白もくれんの会 但東町教育委員会, 『東井義雄教育の原点東井義雄』学校通信『はぶが丘』その誕生と成長」(白もくれんの会 但東町教育委員会, 『東井義雄教育の原点』『はぶが丘』『復刻版(再版)』, 2001.), 421頁.

밑줄을 더했다. ①교내 아이들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추모하는 작품, ②조부모 세대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서술한 작품, ③청년(졸업생)의 마을 내 공동작업(농업)을 다룬 작품이다.

① K군의 어머니를 기리다<17호 특집에서>

소학교 6학년인 U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하부가 언덕』에 추모 작품이 실렸다. U 자신의 작품도 있었지만 마을의 부인회, 도이 요시오의 추모글도 있다. 발췌할 부분은 도이의 추모글 중에서 U의 형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적은 작품을 인용하며 U의 어머니를 기리는 부분이다.

졸업하는 날, U(만형)<17호 (1955년 12월) 수록>

졸업식 아침, 학교에 가려고 하는 차에 어머니가 ‘잠깐만’ 하며 나를 불렀다. 내가 어머니에게 가자 ‘우등상을 못 받아도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인간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라며 이것저것 얘기해주셨다. 나는 들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다. 거기서 나는 ‘그럼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않을게’라며 어머니에게 약속했다. 나는 금방 화를 내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 가니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거나 우등상은 안 받아도 된다거나 생각해드는데 왜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졸업식이 시작하고 졸업증서나 상장이나 상품을 받을 순서가 왔다. 그리고 나는 우등상하고 교육위원상을 받았다. 얼른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어서와’라고 말해주었다. 이미 점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득의양양해서 ‘상장하고 상품 이만큼이나 받았다’고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잘됐네’라며 가만히 상장하고 상품을 받아들고 잠시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웬지 울 것 같은 눈이었다.

그리고 동생까지 세 명이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기뻐하면 다른 한쪽에는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상장이나 상품도 한 사람이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이 못 받는 것처럼’

라고 예를 들며 말해주셨다. 동생도 암전히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했다.

나는, 역시 어머니는 여러 가지 아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시계가 한 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⁶⁾

〈도이 요시오의 말〉

이 무렵은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는 본인에도 학예회는커녕 졸업식까지도 학교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아이의 정신적 생활의 갈림길에서 그 위기를 감지하고, 상황에 맞는 방침을 내려주었다.

팬히 입 아프게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많지만, U씨처럼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알맞은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어머니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이다구, 아니 일본은 훌륭한 어머니를 잃고 말았다. 눈을 감으면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갔을 때의 침착하고, 행복한 가운데 휴식을 취하는 듯한 존경스러운 모습이 선명해 눈이 시큰거린다.⁷⁾

〈고찰〉

U는 어머니에게 ‘우등상을 못 받아도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인간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라는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은 자신이 되고 싶다며 깨달음을 얻는다. 하지만 U는 아직, ‘학교에 가니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거나 우등상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웬지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자신을 보는 또다른 자신을 깨달은 것(자기초월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상 속 종교를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닐까.

당시 그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으나 도이가 말하듯 ‘아이의 정신적 생활의 갈림길에서 그 위기를 감지하고, 상황에 맞는 방침’을 내려주었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아이의 정신적 생활의 갈림길’을 지켜보며 아이를 도왔다.

부인회의 두 명이 쓴 추모글에는 ‘병으로 몸이 불편해지고 괴로운데도, 언제나 고맙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⁸⁾거나 ‘만나 뵈 때마다 U씨에게 배우며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분명 평안하게 잠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진심 어린 병간호를 보며 저희 또한 크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⁹⁾고 적혀

6) 위의 책, 193頁.

7) 위의 책, 같은 쪽.

8) 위의 책, 190-191頁.

9) 위의 책, 191頁.

있다. 부인회의 여성들도 U씨가 ‘병으로 몸이 불편해지고 괴로운데도, 언제나 고맙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면서 자신을 반성한다고 적으며 추모하고 있다.

그리고 U(어머니)씨 스스로도 『하부가 언덕』을 읽고 부모와 자식, 지역 간 배움을 통해 몸의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고를 가진다. 자식인 U(형)는 그러한 어머니의 삶을 배우고 처음에는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후에 ‘역시 어머니는 여러 가지 아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상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던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종교와 결합한 쌍방의 자기객체화다.

② 할머니의 작문, Y <21호(1956년 4월) 수록>

저는 예순이 넘어가는 노인입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중 중 불만이 생기거나 열이 뻗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슬퍼지는 등 늙어갈수록 뒤틀린 마음이 커져갑니다. 흥한 마음가짐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절의 종소리를 들으며 이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염불을 외웁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마는 제 마음 속. 오늘도 밭에서 들꽃을 보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 읊어봅니다.

꽃마늘에 이르니 빛을 발하는 한 송이 국화꽃
 들어보니 신심信心의 국화꽃, 팔면 절의 모란꽃
 불공을 드리는 미다(아미타불)는 패랭이빛으로 보이고
 황매화의 향 드높은 매화꽃 겸손히 늘어트린 등나무꽃
 해매이는 철쭉과 죄많은 양귀비꽃
 순결한 배꽃과 세월빠른 굴꽃
 시간 흐르고 늙어 이끼 꽃 머지않아 무상한 바람이 불면 바로 정토의 연꽃
 무수한 꽃을 보며 시간은 흐르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¹⁰⁾

10) 산꽃을 보고 시를 읊은 할머니의 의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심을 얻으면 이 작은 꽃으로 비유되는 나도 훌륭한 꽃이 될 수 있다.
 아미타불에 귀의하면 패랭이도 금빛으로 반짝이는 몸이 된다.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 양귀비처럼 아름다운 꽃이 된다.
 의문은 사라지고 나날을 보내는 이끼 꽃 같은 나도
 생명이 끝나면 정토의 연꽃이 된다.
 산 속 무수한 꽃을 보며 기뻐하노라면 저절로 입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린다

덕분에 또 하루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이 요시오의 말〉

문집 『하부가 언덕』의 성격상 여태까지 일종일파(정토진종 본원사파—인용자 주)의 신앙을 내용으로 하는 글은 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침은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왔기에 편집자(도이 본인—인용자)의 손에는 신지 못한 귀중한 원고들이 다수 쌓여 있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생각해 보면 특정 종교를 벗어난 신앙은 성립이 불가능할 뿐더러, 특히 노년층의 삶에서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종교를 떼어놓기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Y씨의 삶이 그렇듯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매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여기는 Y씨의 글을 기연으로 삼아 같은 삶의 방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감히 문집에 신고자 했습니다.¹¹⁾

〈고찰〉

이 작품에서는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염불’을 통해 자신의 자연관·인생관을 표현하고 있다. ‘종종 불만이 생기거나’ ‘열이 뻗치거나’ ‘슬퍼지거나’ 하는 것을 ‘뒤틀린 마음’으로 보며 ‘부끄럽다’고 말한다. 또한 그저 반성에 그치지 않고 ‘마음 속을 들여다보며 염불’함으로써 과거의 자신을 탈피하는 자기심화를 엿볼 수 있다.

도이는 『하부가 언덕』이 공립학교에서 만들어지는 문집이기에 ‘일종일파의 신앙을 내용으로 하는 글’은 한 번도 게재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게재하지 않는 방침’이었다는 건 Y씨의 원고가 ‘특정 종교’의 신앙에 얽매이는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도이가 ‘감히’ 이 작품을 게재한 것은 고령자만이 아니라 아이다구의 사람들이 ‘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여기는 Y씨의 문장을 기연으로 삼아 같은 삶의 방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염불을 외는 것으로 ‘자기중심주의를 성찰하라’는 부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정토진종의 신앙을 통해 ‘특정 종교’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종교에 공통된 보편적 문제, 인생관의 뿌리인 ‘자기중심주의의 어리석음’을 성찰하게 해주기에 도이는 이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닐까.

11) 위의 책, 296-297頁.

위 작품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종교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를 심화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작품은 문집이 처음 간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부가 언덕』 초기부터 투고되었다. 도이는 정토진중 사원의 주지였지만, 『하부가 언덕』은 물론 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위에서 말했듯이, 공립학교문집인 『하부가 언덕』의 특성상 일종일파의 신앙을 다룬 작품은 일절 신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손에는 신지 못한 귀중한 원고들이 다수 쌓여 있’던 것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신앙은 자기중심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도이는 문집 23호(1956년 6월)에서 학부모로부터 종교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신불을 향한 예배를 아이에게 전달하는 방법’)를 받고 그 답변을 위해 교직원끼리 나눈 회의록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종교교육은 우선 신불과 자신의 연결을 깨닫는 것이 최우선문제’¹²⁾라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신불과 이어져 있잖아요. 어제도 안고 쿠지(이시카와 다쿠지가 건립한 절—인용자 주)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 줄이 불공을 드리러 왔어요. 게다가 예배하는 모습이 익숙하기까지 하고.’¹³⁾

‘첫째는 먼저 어른이 종교적인 진리를 깨닫고 가정에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 둘째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고 존귀한 것은 존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연한 감각을 키울 것. 셋째는 내성내관(內省內觀)의 눈을 키울 것. 넷째는 감사와 사죄의 언어를 갖고 닦을 것...’¹⁴⁾

공립학교에서 배부하는 문집 『하부가 언덕』의 성격상 일종일파(할머니의 작품에서 보이는 정토진중 본원사파)에 관련 없이 넓은 범위의 종교교육을 인생의 ‘길잡이’로 여겨야 한다는 도이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전후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고 교육기본법(1947년·현재도 제9조는 남아있다)에는 종교교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12) 위의 책, 358頁.

13) 위의 책, 358-359頁.

14) 위의 책, 359頁.

‘제9조 (종교교육) 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 및 종교의 사회적 지위는 교육상 존중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학교는 특정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교육 또는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 조문은 일본국헌법 제20조 ‘신교의 자유’를 적용한 규정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교육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제1항은 ‘모든 방식의 교육을 통해 종교교육 존중을 전제하며 종교교육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 제2항은 헌법의 정교분란 규정을 적용하여 국공립학교의 종교적 중립성, 즉 종교교육의 한계(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내지 종교활동 금지)를 가리키는 것’¹⁵⁾이다.

이는 전후 모든 교육에서 ‘종교교육 존중’, ‘신교의 자유’가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제2항에서 국공립학교의 종교적 중립성을 위해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또는 종교적 활동을 금지했으나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금지된다’고 곧잘 오해를 받는다. 분명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은 ‘종교적 중립’을 해치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교육 자체를 차단해서는 안 되며, 종교교육으로 ‘종교를 향한 관용적 태도나 사회적 지위’를 키우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종교교육을 향한 도이의 제언은 당시 교육기본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공립학교는 ‘종교를 향한 관용적 태도 및 사회적 지위는 교육상 존중되어야’ 했다. ‘특정 종교를 벗어난 신앙은 성립이 불가능’하기에 ‘종교를 향한 관용적 태도’를 존중하고 지역 전체를 발전시킬 커다란 과제로 여겼던 것이다. 도이는 종교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살려진다는 것’에 깨닫고(‘눈 뜨고’),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탈각하여 스스로의 객체화하여 연대하는 ‘길잡이’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

③ 청년의 작품

마을 조성파 합장 정신에 대하여, 아이다구 청년단장 M 〈23호(1956년 6월) 수록〉

6월 14일 벼베기와 파종을 시작으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쁜 농번기(농사일로 바쁜 시기)의 만나절을 저희 아이다구 청년단(청년조)에서는 (영화모임을 위한 입장권 같은 무리한 부탁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구민분들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회와 각 마을 농사부장님의 찬성을 받아 모판소독(모판=모내기 전 벼의 싹을 키우는 판)을 결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구민분들

15) 文部科学省「昭和22年教育基本法制定時の規定の概要」, 文部科学省 홈페이지.

을 위해서라면...하고 생각했던 마음은 소독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린 애들한테 시키면 제대로 되는 게 없다'며 마을분께 들은 한 마디였습니다. 이 분은 예전 청년조에서 했던 소독이 무책임했던 것을 자각하고 반성하도록 말씀하신 거겠죠. 하지만, 그 한 마디 말로 저희 일곱 명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지 모르실 겁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며 단원들은 격해지고, 비록 보잘것없다고 하나 저희들의 선의를 고작 만나질 만에 짓밟은 그 말은 가슴 속에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언젠가 도이 선생님께서 '합장은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아울러 감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의미로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의 한 마디, 한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는지 혹은 죽이는지를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성 없이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며 남을 돌아보지 않는 현대사회에 과연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사소한 일로도 크게 기뻐하는 노인, 사소한 말로 금세 반감을 가지는 청년, 그저 놀고 싶은 아이들까지 모두가 사는 보람과 행복을 위해 보다 좋은 마을 만들기에 협력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기고 섬김 받는 합장의 정신을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에 물을 대는 문제만 해도 건성으로 대응하거나 어중간한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합장의 정신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¹⁶⁾

〈도이 요시오의 말〉

이 원고를 전부 읽고 난 후 어쩐지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분하고 괴로운 마음에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싶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색은 조금도 하지 않고 소독작업에 나섰던 그 날의 청년들이 풍기는 부지런함과 젊음을 떠올리면, 그저 고맙다 잘 버텼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원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조용히 합장하고, 나아가 엄중하게 자기반성을 행하는 단장의 모습까지 생각하면 다시금 눈물이 맺히는 기분입니다. 저희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단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단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을의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동시에, 마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¹⁷⁾

16) 白もくれんの会 但東町教育委員会, 『東井義雄教育の原点「はぶが丘」復刻版(再版)』.

17) 위의 책.

〈고찰〉

청년 단장은 분한 마음을 상대에게 맞부딪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섬겨 지는’ ‘합장’(타자 안의 부처를 발견하는 것, 즉 자타(自他)의 연결)의 정신을 들며 ‘저희들의 한 마디, 한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는지 혹은 죽이는지를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라고 서술한다. 이 청년은 이타적인 태도로 스스로의 발언과 행동에 언제나 엄중한 자기반성을 거치는 ‘합장’의 정신으로, 모두 함께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 싶다고 말한다. 도이는 ‘나아가 엄중하게 자기반성을 행하는’ 그 삶을 보며 ‘눈물이 맺힌다’고 적었다.

이렇듯 문집 『하부가 언덕』이 아이다 소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그 가족뿐 아니라 지역 전체와 어울렸기에(예를 들어 13호에는 ‘젊은이들은 성장하고자 한다’는 기사에 ‘호주(戶主)와 청년의 좌담회’ 방청기록이 적혀 있다) 청년층에게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마을 전체가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탈각하여 타자의 과제를 자기의 과제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하부가 언덕” 이념이 공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문집은 도이의 교육에 대한 여러 노력 중 하나이며, 그들은 교육활동이나 어른들·교사들 간의 회합을 정중하게 거듭해간다. 그리고 교육활동과 회합의 집대성인 문집을 통해 지역 사람들이 누구의 일이든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과제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는 스스로의 삶을 ‘나만 좋으면 됐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깨부수고 어른도 아이도 타자에게서 배움을 얻는 마음가짐으로 자기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상생·평화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반성을 거칠 때 중요한 점은 도이의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신앙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양성·차이성을 가지며 평등하다. 그렇기에 어른도 아이에게서 배움을 얻게 된다.

정토진종의 성전 ‘연여상인어일대기문서 말(蓮如上人御一代記聞書 末)’에서는 정토진종의 용어인 동행(同行), 즉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벗’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자 셋에 지자 하나’, 즉 무엇이든 담합하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전전주상인(前々住上人, 蓮如), 전주상인(前住上人, 實如)에게 삼가 말하노니, 이는 불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굉장히 요긴한 금언이다.¹⁸⁾

18) 浄土真宗聖典編纂委員会, 『浄土真宗聖典－註釈版－』, 本願寺出版社, 1988年, 1311頁.

‘우자(愚者) 셋에 지자(智者) 하나’란 ‘우자여도 세 명이 모인다면 지자 한 사람에 버금간다는 의미’로서, 렌노(蓮如)는 신심을 깨우칠 때 혼자가 아니라 담합(대화, 토의)하며 서로 배움으로써 비약적 성장을 얻는다고 서술한다. 여기서 동행, 즉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벗’과 이야기하며 함께 배우고, 신심을 얻는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하고 있다. 도이의 실천에 빗대면 마을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국가를 위해 연대를 강요당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각자가 주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때 이러한 것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도이 요시오의 학교문집 『하부가 언덕』 속 작품에 대해 신앙을 근거로 한 학교와 지역의 관계가 상생·평화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시점으로 분석했다. 인용한 작품에 드러나듯이, 아이다구 사람들은 『하부가 언덕』을 통한 교류로 인해 부모·자식·교사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점차 타자의 말에서 직접 배움을 얻게 되었으며, 더 주체적인 자기심화로 이어졌다. 그 자기심화를 도운 것은 아이다구 내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다. 렌노가 말했듯이, 이것은 ‘동행’, 즉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벗’과 이야기하며 함께 배우고, 신심을 얻는 장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아이다구로 빗대어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은 문집에서 다뤄졌던 생활, 삶, ‘살려진다’는 것의 의미를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써나가면서, 스스로를 의식하며 생활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자기심화를 이뤄낸 것이다.

불교적 색채가 짙은 아이다구의 길은 종교성을 바탕으로 성인의 작품에는 ‘합장’, ‘기린다는 것’, ‘산다는 것’, ‘살아진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 등의 작품이 투고되었는데, 도이가 말했듯이, 학교교육을 통해 특정 종교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종교에 관한 관용적 태도’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평화교육이 학교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가정이나 지역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한다. 도이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학교와 가정·지역이 사이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그것이 아이들의 진정한 학력으로 이어진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 어른이 아이들로부터 배우고 또 서로 배우는, 신앙을 기축으로 삼고 상호이해와 자기심화를 이뤄내

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이다 소학교에서 도이가 자신의 교육방침을 실천하던 시기는 그 자신의 ‘전쟁책임’으로 괴로워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이는 교직을 관두고 회피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남은 생애를 아이다 소학교와 지역이 연대한 교육실천 활동(『하부가 언덕』)을 통해 승려로서는 물론 교사로서도 엄격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책임’과 마주하며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문집 『하부가 언덕』의 작품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서로에게서 배우며 자기심화를 이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타자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처럼 받아들이는 것, 자기를 객체화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따라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독립적으로 연대하는 것, 다시 말해 ‘아래’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연대하는 것이다. 도이의 교육실천은 오늘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모든 사람이 타자에게서 배우는 엄중한 자기반성으로 자기변혁을 이루어내며,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北島信子, 「東井義雄の教育思想における浄土真宗の教え」, 北島義信編, 『浄土真宗と社会・政治』, 文理閣, 2006.
- 北島信子, 「生活綴方教師の教育観と宗教」, 的場正美・柴田好章編, 『授業研究と授業の創造』, 溪水社, 2013.
- 北島信子, 「東井義雄の教育実践における宗教性の一考察－親・子・教師の文集『はぶが丘』を中心に－」, 『中部教育学会紀要』第15号, 2015.
- 北島信子, 「戦後七〇年と三浦綾子の『銃口』－『教育基本法第一五条(宗教教育)』理解の手がかりに－」, 北島義信編, 『戦後70年と宗教』, 文理閣, 2015.
- 東井義雄, 『村を育てる学力』, 明治図書, 1957.
- 東井義雄, 『東井義雄著作集1』, 明治図書, 1972.
- 東井義雄, 『東井義雄著作集6』, 明治図書, 1973.
- 豊田ひさき, 『東井義雄の授業づくり』, 風媒社, 2016.

東井義雄の教育実践における宗教性

- 学校文集『はぶが丘』を中心に -

桜花学園大学 北島 信子

【抄録】

東井義雄(1912-1991)は日本におけるもっとも著名な教師の一人である。彼は、教師であると同時に、僧侶でもあった。東井は、子どもが課題を追究していくにあたって、学校内だけではなく、学校と地域・家庭が結びついて、協同で子どもを育てていくという立場に立っていた。教育活動の取り組みとして、大人の作品も含めた学校文集で学校と地域が連帯していったいうこと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本論文では、東井の学校文集『はぶが丘』の作品について、信仰を基底にした学校と地域の関係づくりが平和教育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視点から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取り上げた作品には、東井の村がもつ仏教を中心とした信仰に篤い雰囲気の中、大人の作品で、「合掌」「拝むということ」「生きること」「生かされていること」「生かしあうこと」といった作品が投稿されていた。村の人々は文集『はぶが丘』での交流によって、信仰を基底に、親・子・教師の相互理解がすすみ、しだいに、自己中心的な自己を超越し、他者との学び合いによって、自己深化を遂げていった。今日的な、学校を中心とした子どもへのともに生き、生かしあう平和教育を考えていくとき、東井の教育実践が問いかける現代的意義は大きいといえる。

キーワード：東井義雄、生活綴方教育、宗教教育、学び合い、相互関係性

序論

東井義雄(1912-1991)は『村を育てる学力』(1957年)で知られる日本におけるもっとも著名な教師の一人である。そして、の僧侶でもあった。東井は教師になったころから、に情熱を傾け、戦前戦後を通じて子ども主体の教育のあり方を追求した教師であった。

とは、子どもが自身の生活において感じたこと、考えたことを文章で書いた作品について、学級集団による検討を経る中で、「ものの見方、考え方、感じ方」の深化と共有化を図る教育である¹⁾。

生活綴方は、日本において戦前・戦後の長い歴史の中で、その実践が開花した。

教師は多くいるが、その中でも、自身の教育観が深まっていく過程において、宗教性を志向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実践家が数人いる。その一人として、東井義雄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東井の教育実践の深まりには、自身の宗教者としての深まりが大きく反映されていることが著書に表されている。

東井の宗教性とは、仏教の空・縁起に見られる相互関係性と自己中心主義のおろかさへのめざめ、阿弥陀仏を基軸にした人間の平等、自立性と連帯の思想によって15世紀中期の西日本における自治的地域共同体形成を成し遂げた浄土真宗の思想である。

東井義雄の生涯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東井は、1912年に兵庫県(現豊岡市)のの長男として生まれた。小学校1年の時に、母を亡くしたことをはじめ、様々な理由により、貧しさのなかで育った。(現：神戸大学)卒業後、1932年にに着任し、以来10年間在職する。ここで、先輩教師の実践の取り組みに影響を受け、生活綴方教育に情熱を傾けた。

東井は戦前期の青年教師時代から、教師中心の教育ではなく「子どもから学ぶ」という姿勢をもった教師であったことが、実践記録等から伺うことができる。東井は生活綴方教育に情熱を傾ける一方で、当時の日本の不景気のなかで貧しい人たちから「おえもの」をさせる宗教に疑問をもつようになり、しだいに、プロレタリア文学にひかれ、無神論に傾倒していった。しかし、子どもの「いのち」に従った教育を追求するなかで、しだいに無神論からもはなれ、『学童の臣民感覚』(1944年)を出版する。

1) 佐藤広和「生活綴方」の項 安彦忠彦他編『新版 現代学校教育大事典』ぎょうせい、2002年。

東井の「いのち」の思想については、戦前・戦後を通じて「ただごとでなさ」という自覚から、「子どもから学ぶ」という姿勢は変わっていない。しかし、戦前の「いのち」の思想は、天皇の「臣」と「仏」が混在していたものとしての「臣のいのち」であるが、戦後は「臣」が存在しない「仏(のいのち)」を通して、「ただごとでなさ」という自覚がされていたといえる²⁾。

東井は自身の「戦争協力」を猛省し、教師を辞する覚悟をしていた。周りの強い熱望から、戦後教師を続けることになったが、表立った執筆活動を控え、教育実践を深めていった。戦後に赴任した相田小学校では、生活綴方の実践を中心として、親・子・教師による文集によって相互の交流を深めた。ここでは、「自分の家さえよければいい」という考えではなく、村(他者)の課題を自己課題として考えていくような子ども、大人を育てることが目指された。そして、そのことは村を捨て、都会へ出ていくための「学力」ではなく、「村を育てる学力」であった。また、それは国家権力によって統制された集団ではなく、下からの連帯であるといえる。

東井義雄は子どもの生活の論理を大切にし、現実の生活の課題と教科の論理をつなぎ、発展させていくような指導を行った。このような実践は、高く評価され、周囲のすすめにより、戦後10年間の沈黙を破って、不朽の名著と言われる『村を育てる学力』(1957年)として出版された。その功績から、ペスタロッチ賞、賞を受賞し、その後も多くの著書や論文を発表した。1972年に定年退職し、1987年には、すべての教職生活を終えた。とりわけ後年は宗教者としての活動を中心に、「いのちの教育者」としても名を馳せた。

東井の村では、仏教を中心とした信仰を基底にした人々の暮らしがあった。本論文では、子どもの幸せのため、ほんものの学力のために、学校と地域の連帯としての教育活動、学校文集『はぶが丘』の作品を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信仰を基底に、他者から学び、また相互の学び合いが、平和、共生の教育にどのようにして発展していくかについて述べることを本論文の目的とする。

1. 生活綴方と東井義雄の戦前戦後

日本において「生活綴方」は、戦後、その名称で呼ばれる科目として存在しないが、明

2) 北島信子「東井義雄の教育実践における宗教性の一考察－親・子・教師の文集『はぶが丘』を中心に－」『中部教育学会紀要』第15号、2015年、24頁。

治の教育課程行政では、国語科のひとつ(読み方、書き方、綴り方)に位置づけられていた。そして、「綴方」は国定教科書をもたない科目で、文章表現の指導が目的となっていた。

実際に戦前・戦後をとおして、生活綴方教師たちが行ってきた、「子どもが生活をむ」ということ、「そのことを通して仲間と連帯していくこと」とは、教育課程行政においては規定されていなかった。

「生活綴方」は、大正・昭和初期(1912~1930年頃まで)に開花したのち、戦争が激化していくにつれて、国家(天皇制)主義権力に対抗する活動ととらえられるようになり、弾圧されていった。実際に東井も「国家権力」から「指導」を受けたという。

このことから東井は『学童の臣民感覚』を発表したものの、真の意味において「戦争協力者」であったとはいえないと考えられる。そしてまた、『学童の臣民感覚』の内容は、子どもが主体的に学ぶとはどのようなことかについての自らの教育実践の反省であり、そこには浄土真宗の教義さえも見出すことができる。

ただ戦前の東井は、宗教的には、天皇と阿弥陀仏を一体化させた浄土真宗教団の「真俗二諦論」の立場に立っていた。しかし、彼は戦後厳しく自己を問うなかで、子ども、地域の人々の中に仏の呼び声を聞き、それを「綴方」に反映させ、その内容を共有化することによって、自己変革、連帯の思想的基盤をつくり地域の活性化を生み出した。戦後このような道を歩むことができたのも、一貫して子ども中心の立場を持ち続けていたからであろう。

戦後、生活綴方をはじめとする子どもの生活経験を主においた新教育への批判の中で、生活綴方教育も他方面から批判され、「生活綴方」を展開してきた「日本作文の会」は1962年の方針転換により、「生活綴方的教育方法」と呼ばれた生活指導と教科指導の方法の追求よりも、文章表現指導に力点を入れ始めた³⁾。しかしながら、生活綴方を実践している教師たちすべてがそのような転換をしたわけではなく、現代においても、子どもが自身の生活をつかみ、それぞれが独立した個人でありつつ、共同体的社会をつくる生活綴方教育は継続されている。

東井義雄の実践も同様で、戦前戦後一貫して子ども主体の教育を展開し、特に戦後においては、戦前にもまして学校と地域社会との連帯について生活綴方教育を通じて展開していった。

東井の教育実践における親鸞(浄土真宗の開祖)の思想の影響は、戦後において、とくに

3) 同上。

明確になる。

親・子・教師による文集『はぶが丘』をはじめ『村を育てる学力』に結実していく10年の相田小学校での東井の実践時期は、戦前に『学童の臣民感覚』を出版した自身の「戦争協力者」という「あやまち」に苦しんだ時期でもある。東井の相田小学校における地域社会と連帯した実践活動(『はぶが丘』)は、彼の真宗僧侶としての「懺悔」にもとづく活動でもあったと考えられる。

東井の「懺悔」とは、「凡聖逆謗齊廻入」で表現されるように、いかなる(凡聖逆謗)者でも、「心をひるがえして如来の本願力に帰すれば」、齊しく「みな同じ御慈悲を味はせて頂いて、同じ行信の因をもらひうける」のである。つまり、「戦争協力者であった私」(「いのち」を天皇の「臣のいのち」というとらえ方をしていたこと)においても、「心をひるがえして如来の本願力に帰すれば」、「同じ行信の因をもらひうける」という「懺悔」である。

「懺悔」に基づく彼の生き方には、戦前の教育実践にもまして地域社会と学校の関係がふれられ、「村」と連帯していった行動がみられる。そして、「子どもから学ぶ」と同様に、「村(民衆)」から学ぶ(「民衆」に仏をみる)姿勢をとっていったといえる⁴⁾。

2. 親・子・教師の文集『はぶが丘』を通じた宗教性教育

2-1 親・子・教師の文集『はぶが丘』とは

ここで東井の学校で発信されていた文集について述べる。東井の学校では、親・子・教師による文集『はぶが丘』を発行しており、地域・家庭と学校が一体となって子どもたちの教育にあたっている。また、ここで重要なことは、学校が上位に位置づき、地域・家庭、子どもを指導するというのではなく、それぞれが双方向で学び合うという、仏教の空・縁起思想とも深い関係をもつ。『はぶが丘』が誕生したのは、1954年7月であった。「はぶが丘」は、小学校周辺の「」である。『はぶが丘』の構成は、巻頭言、大人(親)の作品、教師の作品、子どもの作品となっている。ここでの「大人」とは、子どもが相田小学校に在籍している「親」だけでなく、校区に住む、大人(地域)全体である。作品には、詩もあれば、親(大人)の問題提起の作品や教師の教育実践や方針についてのものもある。

4) 北島信子「東井義雄の教育実践における宗教性の一考察－親・子・教師の文集『はぶが丘』を中心に－」『中部教育学会紀要』第15号、2015年、24～25頁。

『はぶが丘』は60号(1960<昭和35>年6月刊行)まで続いた。55号より東井義雄が校長職に就き、60号までは刊行されたが、学校長としての公務が徐々に忙しくなったため、60号で刊行が停止となったとされている。

生活綴方教育においても、子どもの作品を文集にしていくことは、取り組みの一つであった。しかし、その際に大人(教師や親、地域の人々)のものも並列に扱った作品集はあまり見ることができない。そして、東井の学校の文集が他の地域のそれと大きく異なるのは、信仰を扱った内容を村中の人々で深めようとする点にある。もちろん、信仰に関わる作品のみを扱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特に子どもの祖父母世代の作品には、信仰に関わるものが多くある。

また、投稿された作品の特徴として、農村ということもあり、農業(働くこと)に関わるものが多く表現されている。当時は、東井の学校に限らず、日本の農村地帯においては学校を休校にしていた。東井の校区の子どもの家庭では、ほとんどが農業従事者で、小学校高学年になると、子どもたちも農業を手伝っていた。そのようななかで文集では、「農繁期の研究」の特集が組まれ、生きることと学ぶこと、よりよく生きていくための農繁期の研究が投稿されていた。そこでは、大人も学び、子どもたちも働くことと学ぶことがつながっていた。

そして、大人が投稿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るが、働くことと、信仰心のつながりが表現されている。生きること(働くこと)と信仰心が密接に結びついた投稿が数多くみられる。

東井自身は浄土真宗の僧侶でもあったが、相田校区は、広く宗教(仏教・神道・キリスト教など)が人々のくらしの根底を支えていた村であるといえる。

東井は学校ではすべての子どもたちから学びつづけ、文集では地域の人々から学びつづけていた。そして、子どもたちも、大人たちも他者から学びつづけていた。

東井の村の大人たちは当初から協同性をもっていたわけではなく、東井らの教育や文集を通して他者から学ぶなかで変容し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熱心に働き、なんらかの信仰は漠然ともってはいたものの、「自分の家さえよければいい」という考えがどこかにあった。農業に村のほとんどの人が従事していたので、田に水を引く時は「けんか」になっていたという。東井の生活を基底にした教科学習のあり方から、東井はそのような大人のいざこざが子どもたちの学習姿勢にも影響してくることを授業内で読み取った。そして子どもたちが学習を深めていくには、仲間との協同、村の大人同士の協同の実態を目指さなければと考えるようになる。

村の人たちは忙しい。授業後、学校で話し合いを頻繁に実施することは現実的に困難

であった。そこで、東井は居ながらにして、村の人々の意見を読むことができる「文集」を提案する。「文集」の投稿は、子どもがその小学校に在籍している世帯だけでなく、校区内のすべての世帯が対象であったという。そこで、村中の人々が多くの投稿を読むようになる。

2-2 『はぶが丘』作品の特徴

ここでは、『はぶが丘』に投稿される作品の特徴である、信仰を基底に、地域がつながっていく事例を考察したい。

現在の日本の教育活動においても、文集はあるが、「個人情報保護法」などにより、実名も含め子どもの多様な作品が印刷、広く配布されることは非常に難しくなっている。まして、家族の死についての作品やそれを悼む作品が書かれ、印刷、配布されることはないといってもいい。

『はぶが丘』では、小学校に在籍している子どもの家族が亡くなった際には、学校や子どもだけで、その悲しみを受け止めるのではなく、地域全体の投稿から、悲しみを村全体で受容している様子を見ることができる。また、投稿される作品は、号を重ねて自己が深ま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初期の段階から、「生きているのではなく、生かされている」という、大人の自己深化が見られるものも多い。ここには、大乘仏教に通底する空・縁起の相互関係性、差異的な人間同士の相互関係性、その認識による自己客体化、ものごとの一体性の認識などが見られる。

これらがうまれたのは、「地域・村の家庭のほとんどが、東井義雄が住職を務める浄土真宗・東光寺の檀家ではないが、日頃から法話等を聞く機会が多」⁵⁾かったことから、特定の宗教宗派を問わず信仰に篤い地域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しかし『はぶが丘』では、子ども(当事者だけでなく、学校の仲間も)も書くが、大人(地域)がともに、書くことを通して、「死」を受容しているところに大きな特徴がある。地域共同体で「死」の受け止めがなされているといえる。そして、「死」について、特に大人が自己の認識を深めているといえる。

このような認識が深まっていったのは、『はぶが丘』において、生活すること、生きる

5) 菅原稔「東井義雄先生の教育実践と学校文集『土生が丘』—その意義と価値—」(白もくれんの会 但東町教育委員会『東井義雄教育の原点東井義雄「学校通信『はぶが丘』その誕生と成長」(白もくれんの会 但東町教育委員会『東井義雄教育の原点「はぶが丘」復刻版(再版)』2001年、421頁。)

こと、生かされていることに日常的に向き合って、書くことによって表現し、地域で交流してきたことと、信仰に篤い地域であったことから、「死」についても、受け入れる土壌があ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考えられる。

2-3 作品の考察—自己深化と相互理解—

本章において、いくつかの作品を取り上げる。考察にあたって、筆者が下線を付した。①学校内の子どもの家族が亡くなった時の追悼に関する作品、②祖父母自身の信仰について取り扱った作品、③青年(学校を卒業している)の村落共同作業(農業)に関する作品である。

① K君のおかあさんを悼む〈17号特集より〉

小学校6年生のUさんの母が亡くなった時、『はぶが丘』で追悼の作品が掲載されている。もちろん、Uさん自身の作品もあるが、校区の婦人会、東井義雄の追悼文もある。取りあげるのは、東井の追悼文のなかで、Uさんの兄が小学校を卒業する時に書いた作品をあげ、Uさんのお母さんを悼んでいる部分である。

卒業式の日 U(兄) 〈17号(1955年12月)所収〉

卒業式の日、もう学校に行こうかなと思っていると、母が「ちょっと」といってぼくを呼んだ。ぼくが母のところへいくと

「優等がもらえなくても、心をひねくれさせたりするのが、一ばんいけないんだで(ですよ)。人間は、心が一ばん大じ(大切)なんだから…」

と、くわしく話してくださった。ぼくは聞きながらほんとにそうだ、と思った。そして、優等がもらえてももらえなくても、卒業記念によい子になろうと思った。それで「ほん(それ)なら、人をおこらないようにする」と母にやくそくした。ぼくは、どうもよくおこ(怒)りたくなるくせがあるからだ。

でも、学校にいても心が一ばん大じ(大切)なんだ、優等なんかどちらでもよいのだ、と思おうと思うが、心はなかなかおさ(治)まらなかった。

式がはじまり、卒業証書や賞状や賞品をいただく番がきた。そして、ぼくも、優等賞や教育委員会賞までいただいた。早く母に見せたいと思った。

式がすんで家に帰ったら、母がいつもより大きな声で「お帰り」といつてくれた。

もう昼食の用意がしてあった。ぼくは得意だったので「これだけ賞状や賞品をもたらったで(よ)」といつて見せた。母は「それはよかったね」と、じつと賞状や賞品を手にとって、しばらく見つめていた。なんだか涙が出そうな目だった。

それから、弟と三人でごはんをたべた。

ごはんを食べながら、母はまた、こんな話をしてくれた。

「世の中はおかしいもので、一方が喜ばば、その一方では悲しんでいる人があるものです。例えば、賞状や賞品でも、一人のものがもらってしまうと、ほかの人はもらえん(もらえない)でしょう」

と、例をあげて話してくださった。弟も静かに聞いていた。最後に母は

「人にすかれる人になるんだで(なるのですよ)……」

と、いつてくれた。

ぼくは、やっぱりおかあさんは、いろいろなことが、よくわかるんだなあ、と思った。

時計が一時半をさしていた。⁶⁾

〈東井義雄のことば〉

もう、この頃は、病状が大分進んで、学芸会にも、卒業式にさえ、あの子供思いのUさんの姿を学校に見出すことが出来なくなっていたのだが、子供の精神生活の岐路に処しては、ちゃんと、事前にその危機を察知し、その場に適応した指針をこうして与えておられるのだ。

徒らに口やかましく子供に説教されるおかあさんは、世の中にたくさんあろうが、Uさんの様に、適確に機をとらえ、その場に即した教えを与えることの出来るおかあさんは、そうざらにあるものではなからう。

校区は、いや日本は、よいおかあさんをなくしたものだ。

目をとじると、最後に見舞った日のおちついた、静かな、しあわせの真中で休んでおられるような、尊い寝姿がと目に浮かんで、涙がにじむ。⁷⁾

6) 同上、193頁。

7) 同上。

〈考察〉

Uさんは、母親に「優等がもらえなくても、心をひねくれさせたりするのが、一ばんいけないんで(ですよ)。人間は、心が一ばん大じなんだから…」と言われ、賞をもらうことばかり考えていたが、そうではない自分になりたい、と気づく。しかし、まだ、「でも、学校にいても 心が一ばん大じ(大切)なんだ、優等なんかどちらでもよいのだ、と思おうと思うが、心はなかなかおさ(治)まらなかった。」とある。このことは、自己を見るもう一人の自己への気付き(自己超越性)といえる。これは宗教を通して生まれたものといえよう。

母親自身は、この頃すでに体調がよくなったが、東井が述べるように、「子供の精神生活の岐路に処しては、ちゃんと、事前にその危機を察知し、その場に適応した指針をこうして与えて」いる。指針とは、「賞をもらうこと」ではなく、「心が一ばん大じ(大切)」であることに気づくということである。体調がよくない中で、「子供の精神生活の岐路」を見極め、子どもに伝えている。

婦人会から2名の追悼文もあり、そこでは、この母親が、「病床にあり、不自由な身体になり、苦しい中から、何時も、ありがたいということ、感謝ということを見出しておられ」⁸⁾た、「Uさんは、病床にあり、不自由な身体になり、苦しい中から、何時も、ありがたいということを見出しておられました。私はお伺いさせて頂く度に、Uさんに学ばせて頂き、自分を反省させて頂いて来ました。最後はきっと安らかに眠りになったことと存じます。なお、子供さん方の真心あふれる献身的な御看病にも、私たち、大いに学ばせて頂かねば……と存じます。」⁹⁾と書かれている。婦人会の女性も、Uさんの「苦しい中から、何時も、ありがたいということを見出して」いたことから、自己を反省してきたと述べ、悼んでいる。

そして、これらのことから、U(母)さん自身も、『はぶが丘』を読み、親子、地域での学び合いを通じて、自身の体が苦しいことを苦しみとせず、感謝するというものの見方をしている。子どもであるU(兄)さんは、そのような母の生き方から学び、最初は「心がなかなかおさまらなかった」のが、「ぼくは、やっぱりおかあさんは、いろいろなことが、よくわかるんだなあ、と思った。」のように、賞をもらうことばかり考えていた自分から、認識が深化したと考えられる。これを可能にしたものは、宗教と結合した綴方を通した自己客体化であるといえる。

8) 同上、190-191頁。

9) 同上、191頁。

② おばあさんの作文 Y〈21号(1956年4月)所収〉

私は、六十をこした年寄りでございます。なに不自由なく毎日を暮らさせてもらっておりますが、ときどきぐちがおきたり、はらが立ったり、なんでもないのに、かなしくなったり、いろいろとしよりのひがみ(ひがみ=素直に解釈せず、まげて考えること)がおきます。みにく(醜)いむねの中、おはずかしいことでございます。あさ、ひる、ばんにはかね(鐘)の音をきかせていただき、このむねの中をながめては、おねんぶつ(念仏)させてもらっております。それでも、はれたとおもうと、またあとからくもってくるわたしのむねの中。

きょうもたんぽで山の花を見ながらつぎのようなたをおもいだして、口ずさませてもらいました。

花の都にいたる時 みのり一つは菊の花
 きけば信心うりの花 うればせつのだきばたん
 たのめばみだ(みだ：阿弥陀仏)はなでしこの 色にも見えて山ぶきの
 かおりも高き梅の花 さがりてうれしやふじの花
 まよいのつなはきりしまで、つみとさわりはけしの花
 うたがいひとつはなしの花 月日も早くたちばなで
 年増し老いてこけの花 やがて無常のかぜふけば ただちに浄土のはすの花
 つきせぬ花の数々をながめてよろこぶ時をます なむあみだぶつ なむあみだぶつ¹⁰⁾

おかげさまで、またきょうも一日 すご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東井義雄のことば〉

一宗一派(浄土真宗本願寺派－引用者注)にかたよった信仰を内容とした文章は、こ

-
- 10) 山の花を見ながら口から出たこのおばあさんの詩が言わんとすることを要約すれば、以下のようになる。
 信心(信仰心)を得ると、この小さな花にたとえられるこの私も、素晴らしい花となる。阿弥陀仏に帰依すれば、なでしこの花も、金色に輝く身となる。
 迷いが断ち切られるとき、罪障はケシのような美しい花となる。
 疑いは消え、日々は過ぎゆき歳老いた、コケの花にたとえられるこの私も
 いのち終われば浄土の蓮の花となる。
 無数の山の花々をながめて喜んでいると南無阿弥陀仏が口から出てくる。

れまで「が丘」の性質上、一度ものせさせてもらいませんでした。これからも、そういう方針はくずさないで進み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んな考えで来ましたので、編集者(東井一引用者)の手もとには、そういう意味の尊い原稿がすでに相当たまっております。〈中略〉しかし、考えてみると、特定の宗教をはなれた信仰というようなことは、具体的には、あり得ないことですし、ことに、お年寄りの場合、生きてくださる上に、必要欠くべからず道しるべとなっているのがこれだと考えますと、どうしてもこれをよけて通ることがむずかしいようにも考えられます。ともあれ、おとしよりもまた、このYさんのように、おとしよりの人生というものを、大事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ものです。刻々を粗末にせず、一日々々を尊いものにしていただいているYさんの文章を機縁にそういう生き方をきりひらいていただきたく、あえて、ここにこれをのせさせていただきます。¹¹⁾

〈考察〉

この作品において、この女性の日常生活に根づいている「お念仏」を通じて、自身の自然観・人生観が表現されている。「ときどきぐちがおきたり」「はらがたったり」「かなしくなったり」することを「ひがみ」として「みにくい」、「はずかしい」としている。そして、反省に終わらず、「むねの中をながめておねんぶつ(念仏)」することを通して、古い自己を超えようとする自己深化がみられる。

東井は、『はぶが丘』が公立学校で展開されていることから、「一宗一派にかたよった信仰を内容とした文章」を一度も掲載していなかった。今後も「掲載しない方針」というのは、「特定の宗教」の信仰に直接かかわる内容であったためと考えられる。

東井が「あえて」この作品を掲載したのは、高齢者だけでなく、相田校区の人々に対して、「刻々を粗末にせず、一日々々を尊いものにしていただいているYさんの文章を機縁にそういう生き方をきりひらいていただきたく」ためであった。ここには自分の称える念仏に、「自己中心主義のおろかさに目ざめよ」という仏の呼び声を聞くことへのうなずきの大切さが感じられる。この作品は、浄土真宗という具体的な信仰を通して、「特定の宗教」に限定されないすべての宗教に共通する普遍的な問題、人生観の根本にある「自己中心主義のおろかさ」への目ざめが提起されているから、東井はこの作品を掲載したのであろう。

11) 同上、296～297頁。

地域の人々の日常の中に、取り上げた作品のように宗教を通して相互理解と自己深化をみることができるものがある。そのような作品は、号を重ねるごとに投稿が増えていったのではなく、『はぶが丘』の初期の段階から投稿されている。東井自身は浄土真宗の寺院ではあったが、決して、『はぶが丘』および学校で特定の宗教の教育を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むしろ、上述のように、一宗一派の信仰を扱った内容の投稿については、公立学校の文集である『はぶが丘』の性質上、一度も掲載せずにきたという。しかし、「そういう意味での尊い原稿が相当たまっている」とあることから、村の人たちが自己を深めていくには、信仰の問題はとても重要な基軸をな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いえる。なぜならそこには自己中心主義を乗り越える方向性の提示があるからである。

東井は、宗教教育については、23号(1956年6月)で、親からの問題提起(「神仏への礼拝について子どもへの伝え方」)を受け、それに対する回答として、教員同士の座談会の形式で記述されているものを掲載している。

そこにおいて、「宗教教育は先ず神仏と自分の結びつきをわからせることが先決問題」¹²⁾として、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る。

「その点、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たちは、理くつなしに、神仏と結びついているね。昨日も(足利尊氏が各地に建立したー引用者注)さんに行っていると、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たちが、つぎつぎにまいてくる。しかも、その礼拝の姿がすっかり板についているんだね。」¹³⁾

「第一は、大人が宗教的な法悦をもつことによって、家庭に宗教的雰囲気をつくること。

第二は美しいものが美しいとかんじられ、尊いものが尊いと感じられるような、柔軟な感覚を育てること。第三には内省内観の眼を育てること。第四には、ありがたいとかすまないとかの言語感覚をみがくこと……」¹⁴⁾

このように、『はぶが丘』では、公立学校が発信する文集という性質上、一宗一派(おばあさんの作品に見られた、浄土真宗本願寺派)に関わらず、広く宗教教育について、人生

12) 同上、358頁。

13) 同上、358～359頁。

14) 同上、359頁。

の「道しるべ」として考えていくことを東井が提案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戦後、日本国憲法が制定され、教育基本法(1947年・現行も第9条は変更なし)において、宗教教育は以下のように述べられている。

「第9条（宗教教育） 宗教に関する寛容の態度及び宗教の社会生活における地位は、教育上これ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が設置する学校は、特定の宗教のための宗教教育その他宗教的活動をしてはならない。」

この条文は日本国憲法第20条「信教の自由」を受けた規定である。教育基本法においては、文部科学省は以下のように示している。第1項は、「すべての教育を通じて、宗教教育が重んぜられるべきことを前提として、宗教教育の在り方を示すもの。第2項は、憲法の政教分離の規定を受けて、国公立学校の宗教的中立性、すなわち宗教教育の限界(特定の宗教のための宗教教育ないし宗教的活動の禁止)を示すもの」¹⁵⁾である。

このことは、戦後すべての教育において「宗教教育が重んぜられ」「信教の自由」が尊重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第2項において、国公立学校での宗教的中立性として、特定の宗教のための宗教教育ないし宗教的活動の禁止とあるが、日本においては一般に「公立学校では宗教教育を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意味に誤解されている。確かに、国公立学校においては「特定の」宗教教育は「宗教的中立」のためになされるべきではないのであるが、それは宗教教育を遮断することではなく、宗教教育によって、「宗教に関する寛容の態度や社会生活における地位」を育て、尊重していくことが重んぜられているのである。

東井の宗教教育への提言は、当時から教育基本法を正當に把握しており、公立学校が「宗教に関する寛容の態度及び宗教の社会生活における地位は、教育上これ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特定の宗教をはなれた信仰というようなことは、具体的には、あり得ないこと」であるため、「宗教に関する寛容の態度」を尊重し、地域全体で深めていく大きな課題であるとしていたのである。

東井は宗教を、ともに生きるために「生かされていること」に気づき(「めざめ」)、自己中心的な世界から脱却し、自己を客体化し、連帯していく「道しるべ」としてとらえているといえる。

15) 文部科学省「昭和22年教育基本法制定時の規定の概要」、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

③ 青年の作品

村づくりにおける合掌の精神について 校区青年団長 M〈23号(1956年6月)所収〉

六月十四日、稲刈り、そして田植えのはじまりと、猫の手も借りたい様な(農業の仕事が忙しい時期)の半日を、私たち校区(青年組)では(映画会の入場券のご無理なお願いばかりでなく)少しでも校区の皆様方の為に奉仕することが出来たら……との念願から役員会、そして各部落(集落)の農事部長さんの御賛成のもとに、(苗代= 田植えまでの間、稲の苗を育てるための田)を決行したのであります。

しかし、私達がその日まで考えていた、校区民の皆様のために……という祈念は、消毒をはじめる以前に、すっかり傷つけられていたのです。それは

「青年の者にやらせて、ろくなことはない」

と言われた一校区民の方の冷たい言葉一つだったのです。この方は、過去に於いて(青年組)で行なった消毒の無責任さを反省、自覚する言われたのでありましょう。

しかし、たったこれだけの言葉に、私達係員七名はどれだけ苦しい悲しい思いをしたことでしょうか。もっと言い方があるだろうに……とくやしがる団員、こんなことなら、もう二度とするもんか…と激する団員、の半日であっただけに、私たちの善意(それはとるに足りぬ小さな善意かも知れませんが)をふみにじられたこの言葉は、胸の奥まで突き通ったのだと思います。

私はいつか、東井先生のお話の中で、「とは、自分と他人の存在を併せて感謝することだ」と言われたことを思い出します。私はこれは相手の気持になってものを考え、相手の気持になつて事を行え、という事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のですが、私たちの一つの言葉、一つの動作が、どれだけ人々を生かし、又、殺しているかを考えると、おそろしくさえます。そして、このことに無反省に、ひたすら自分の都合を追求して他をかえりみない現代の社会に、果して幸福が期待できるだろうか、を考えます。

それと共に、一寸したことにも大喜びをする老人、一寸した言葉にも反感を持ちたがる若者、遊びたい一方の子供……それらみんなが、生きがいと喜びに立ち上り よい村づくりに協力し、労をいとわず働くようになるためには、ぜひ共、拌み拌まれる合掌の精神を柱とせねばならぬと思うのです。それは水田の水の取り合いの問題一つを考えても口先やなまはんかな(= 中途半端な)態度では、実現できない難事業ではありましょう。しかし、それだけに私たちはそれを貫きたいのです。16)

16) 白もくれんの会 但東町教育委員会『東井義雄教育の原点「はぶが丘」復刻版(再版)』2001年、328～329頁。

〈東井義雄〉

この原稿を切りながら、私は何べんか涙が出そうになりました。おそらく、くやしくてつらくて、だき合って、泣きたい様な気持だっただろうのに、そんなけはいはも出さずに、消毒の作業に当たっておられたあの日の若い人たちの、いそいそしい若さのあふれた態度を思い出すと、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よく耐えてくれたとつぶやかずにはおれませんでした。そして、その言葉の主に対しても、静かにし、そればかりか、って、厳しく自己反省しておられるこの団長の生き方を考えると、また涙をさずにおれませんでした。わが校区にこんな美しい青年団があり、こんないい団長さんがいて下さることを、校区の皆さんと共に、心から喜ぶと共に、村づくりのために、手を取り合う具体策を何とか練り合う段階におし進めていただきたいものと思います。¹⁷⁾

〈考察〉

団長である青年は、くやしい気持ちを相手にぶつけることで解消、解決するのではなく、「拝み拝まれる」「合掌」(他者の中に仏を見ること、自他のつながり)の精神をあげ、「私たちの一つの言葉、一つの動作が、どれだけ人々を生かし、又、殺しているかを考えると、おそろしくさえます」と述べている。この青年のように、自己中心的なものの見方ではなく、自身の発言や行為について、常に厳しい自己反省を「合掌」の精神で、みんなでよい村づくりをしていきたいとしている。東井は、その姿を「って厳しく自己反省する」生き方に「涙をさずにおれ」なかったとしている。

このように『はぶが丘』が相田小学校に在籍している子どもの家庭だけでなく、地域全体(つまり、青年層とも)とかかわってきたため(例えば、13号で、「若い人たちは伸びたがっている」という記事があり、そこでは、「と青年の座談会」記として記述されている)在学している子どもの家族だけでなく、青年層にも「子どもの幸せ」のため、村全体が自己中心的世界から脱却し、他者の課題を自己の課題として共に生きようとする、『はぶが丘』の理念が共有されてい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もちろん文集は取り組みの一つであり、東井らは教育活動や大人たち・教師たちとの会合を丁寧に積み重ねてきている。教育活動や会合などの集大成である文集によって、地域の人が他人事ではなく、どの人にとっても自分の課題としてとらえることは、自らの生き方を「自分さえなければいい」という「自己中心的自己」を突き破り、大人も子ども

17) 同上。

も、他者から学ぶ視点をもって、自己変革を遂げていくことによって平和実現へとつながっていくと考えられる。

そして、このような厳しい自己反省の立場にたつにあたって、重要なことは東井の村の人々に根付いている信仰心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信仰の前では、すべての人は多様性・差異性を持ちつつ、平等であるといえる。だからこそ、大人も子どもから学ぶのである。

浄土真宗の用語で、「同じ信仰の道を歩む友」という意味の「同行」について、「蓮如上人御一代記聞書 末」において、以下のように述べられている。

「愚者三人に智者一人」とて、なにごと談合すれば面白きことあるぞと、前々住上人(蓮如)、前住上人(実如)へ御申し候ふ。これまた仏法がたにはいよいよ肝要の御金言なりと云々。¹⁸⁾

「愚者三人に智者一人」は、「愚者でも三人あつまれば智者一人にあたるとい意」であり、蓮如は信心を深めていく際に、一人ではなく、談合(話し合い、討議)で、互いに学び合うことによって、飛躍的な高まりが得られると述べている。ここにおいて、同行という「同じ信仰の道を歩む友」が話し合うことによって、互いに学び合い、信心を深めていく場の重要性が指摘されている。

東井の実践でいえば、村中の人々が国家から、「上」からの命令で、国家のために連帯をとら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平等な関係のなかでそれぞれが主体的に生きる方途を話し合い、互いから学びあっているところにあらわれているといえる。

結論

東井義雄の学校文集『はぶが丘』の作品について、信仰を基底にした学校と地域の関係づくりが相生・平和教育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視点から分析してきた。

取り上げた作品に表されているように、相田校区の人々は『はぶが丘』での交流によって、親・子・教師の相互理解がすすみ、しだいに、直接他者から言われたことから学ぶ

18) 浄土真宗聖典編纂委員会『浄土真宗聖典－註釈版－』本願寺出版社、1988年、1311頁。

というところから、より自覚的な気づきでの自己深化となっていた。その自己深化を助けたのは、相田校区のもつ仏教を中心とした地域共同体である。蓮如が述べたように「同行」は、「同じ信仰の道を歩む友」が話し合うことによって、互いに学び合い、信心を深めていく場が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相田校区でいえば、文集で取り扱われてきた、生活すること、生きること、生かされていることを校区の人々が、並列の立場で、書くことを通じて、意識しながら生活し、互いから学び合い、自己深化を深めていたといえる。

相田校区の仏教を中心とした信仰に篤い村の雰囲気の中、大人の作品では、「合掌」「拝むということ」「生きること」「生かされていること」「生かしあうこと」といった作品が投稿されていたが、それは、東井が述べたように、学校教育で特定の宗教の教育をすることではなく、教育基本法に規定されている「宗教に関する寛容の態度」を尊重するためであるといえる。

今日的な、学校を中心とした子どもへのともに生き、生かしあう平和教育を考えていくとき、家庭や地域がどのような状況であるかを今一度見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東井は、「子どもの幸せ」のため、学校と家庭、地域が手をつなぎ合う、仲良しの村でなければ子どものほんものの学力にはつながらないとしている。そのためには、大人が子どもから学び、また相互に学び合う視点を持ち、信仰を基軸として、相互理解と自己深化を遂げ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といえる。

相田小学校での東井の実践時期は、自身の「戦争責任」に苦しんだ時期でもある。東井は教職を辞することではなく、相田小学校での地域と連帯した実践活動(『はぶが丘』)によって、僧侶としてはもちろん、教師としての厳しい自己反省を常にもち、生涯「責任」に向き合い続けてい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はぶが丘』の作品においては、村中の人々が、大人も子どもも相互に学び合い、自己深化を遂げていったといえる。他者の課題を自己の課題としてとらえるということ、自己客体化するということは、国家権力により集団化させられているものではなく、個人が独立しつつも、連帯するという「下」からの、「内」からの連帯である。東井の教育実践は、今日的な学校と地域社会の連帯についてのみならず、すべての人が他者から学ぶという厳しい自己反省をもって自己変革を遂げ、共に平和な未来を創造していくという課題について、普遍性をもっているといえよう。

参考文献

- 北島信子「東井義雄の教育思想における浄土真宗の教え」(北島義信編『浄土真宗と社会・政治』所収、文理閣、2006年)
- 北島信子「生活綴方教師の教育観と宗教」(的場正美・柴田好章編『授業研究と授業の創造』所収、溪水社、2013年)
- 北島信子「戦後七〇年と三浦綾子の『銃口』-『教育基本法第一条(宗教教育)』理解の手がかりに-」(北島義信編『戦後70年と宗教』所収、文理閣、2015年)
- 東井義雄『村を育てる学力』明治図書、1957年。
- 東井義雄『東井義雄著作集1』明治図書、1972年。
- 東井義雄『東井義雄著作集7』明治図書、1973年。
- 豊田ひさき『東井義雄の授業づくり』風媒社、2016年。

원고접수일: 2017년 11월 12일 심사일 : 2017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27일

연구자소개: 기타지마 노부코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오오카학원대학 보육학부

② 관심영역: 교육학

③ 주요논저: 「동정 요시오의 교육 실천의 종교성에 대한 연구」, 「아이의 작문에서의 생활 표현의 수업론적 연구」

④ E-mail: kitajima@ohkagakuen-u.ac.jp

Abstract

On the Religiosity of Tohi Yoshio's Educational Practices:
Focusing on the School Composition Journal *Habugaoka*

Nobuko Kitajima
Ohkagakuen University

Tohi Yoshio(東井義雄) is one of the most celebrated school teachers in Japan. He was not only a teacher, but also a Buddhist priest. He had been standing on the basis of bringing up children in collaboration with school, community, and family. As one of his educational activities, we can point out communal solidarity with school through the composition journal in which adults' works were contained as well as children's ones.

In this article, analyzing the school composition journal *Habugaoka*, I would like to clarify that building human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nd community based on religion, is to be connected with peaceful and symbiotic education. In *Habugaoka*, we can find such composition titles as 'Joining Hands Together in Prayer', 'Worship' and 'Living Symbiotic Lives.' Those compositions written by adults, were born in a religious atmosphere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human exchanges based on *Habugaoka*, village people had developed mutual understandings among parents, children, and teachers, so that they gradually had gone beyond their ego-centric way of thinking and had deepened self-understandings through their learning from the others with each other. Even today, Tohi's educational practices have profound meanings to inherit when we investigate peaceful symbiotic education for children based on school.

Key words: TOHI Yoshio, life composition education(生活綴り方教育), religious education, learning each other, interconnectedness